

## “부처님 저와 함께 춤춰요”

불레협 율동경연대회 · 풍경소리 콘서트 · 소년소녀합창단 순회공연

### 찬불가 · 율동 ‘새싹포교 키워드’로

“노래하고 춤추면 부처님과 친해져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신나는 부처님 세상이 열린다. 포교현장에 노래와 율동으로 흥이 더해지면 그만큼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 이같이 신나는 일을 꾸미는 곳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 벗 풍경소리,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등 교계 어린이 단체들. 이들 단체는 새봄을 맞아 찬불가와 율동을 키워드로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목, 이하 불레협)는 3월 7일 회의에서 어린이 율동경연대회와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열기로 했다. 어린이율동경연대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 계획이며, 총 참가팀은 단체 30곳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참가팀은 찬불가에 맞춰 창작 율동을 선보여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고 밝은 찬불가를 창작·보급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불교청년회가 18차례 열어온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도 이관받는다. 불레협은 봉축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연꽃노래잔치의 본선을 5월 13일 치를 계획이다. 예선은 4월 29일이며, 총 참가팀은 300곳.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이하 풍경소리)가 준비하고 있는 찬불가 콘서트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상당한 ‘추입세’를 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풍경소리는 5월 3, 4, 5일 매일 한회씩 3일간 연이어 찬불가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풍경소리의 찬불가 콘서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열릴 계획이어서 어린이 청소년용 찬불가의 제작과 보급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계절별 콘서트를 통해 신선하고 재미있는 창작 찬불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단장 황학현)은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를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 사찰을 순회하며 합창 및 무용공연을 펼친다. 이번 순회 공연은 사찰 어린이

법회에 어린이 합창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황학현 단장은 “어린이법회 운

영사찰을 순회하며 매일 창작 합창곡 1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노무현 대통령 연꽃마을 시설서 ‘업무보고회’

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능인 스님의 안내로 복지 시설을 둘러본 후 업무 보고회에 참석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과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업무 보고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 검진과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등의 노인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 보고회’로 형식을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사지재=연꽃마을

## “건축·문화용품에서 사찰홍보까지...”

한국불교박람회 · 22~2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할 예정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특히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 관음종 등이 종단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계사 관문사 도선사 등 서울지역 주

요 사찰들도 참여한다. 또한 다나아 이앤씨의 사이버체험관이 운영되며 산림조합중앙회목재유통센터에서는 한옥식 건물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15면

김주희 기자 jkim@buddhapia.com

### 봉축포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포어로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가 선정됐다.

봉축위원회는 3월 5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45점(148명 응모)에 대한 심사 결과 최윤규(41·적광사)가 응모한 문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포어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곧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포어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가 사용된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 한석불교문화재단에서 참선프로그램과 요가지도 등을 하고 있는 최윤규씨는 “상급30만원을 해의 불교홍포를 위한 사업에 기부해 달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에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북경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척박한 곳에서 자란 나무  
 용정운(www.zentoon.com)  
 어느 기구 만드시는 불의 말씀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보다 척박한데서 자란 나무가 무늬, 색깔, 강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의 속살처럼 두드러진 마음... 부처님 마음...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두 마리의 학(鶴)이 노닐고 있을 뻔인데 무대가 좁다.  
 국립국악원 예약장은 가득채운 반주음악 속에서 두 마리의 학이 너울너울 몸짓언어를 풀어내는 동안 관객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을까?  
 3월 8일 예약장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무대는 김덕명 옹의 양산 사찰학춤으로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최종민 교수(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는 김용을 소개하며 “여든넷의 연세이고 최근에 병환을 겪은 터라 한 발로 표현하는 동작이 많은 학춤을 어떻게 소화하실지 모르겠다”고 은근한 걱정을 했다. 그러나 최  
 김덕명의 사찰학춤... ‘명인’의 ‘명무’  
 구경꾼들 속에서 기자는 ‘춤꾼의 팔순 연세보다 걱정되는 것은 갈수록 소외 받는 전통 가치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용의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고 앞마당에서 춘 것이 기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반면 한 역사는 차지하려다 동쪽 그 자체가 갖는 고고한 아름다움은 학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통도사로 출가해 스님들께 사찰학춤과 승무 등을 익혀 평생 지켜온 김용이 아니었으면 양산사찰학춤은 맥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전수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찰학춤을 비롯한 많은 전통 무용들이 ‘무대용’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명인’이 ‘명무’를 드러내는 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임을 절감케 하는 무대였다.  
 임연태 기자

www.bexpo.org

무료입장

우리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DHISM EXPO 2007

3월 22일(목) ~ 25일(일),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 주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 706-3493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 전시내용 : 사찰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 전통식품, 다기 · 다구, 장례문화 등  
 ● 체험프로그램 : 혜안스님 서각체험, 도예체험, 연등만들기체험  
 ● 문화행사 : 법패시연, 선무도시연, 문화공연 등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내리시면 출구가 하나입니다.  
 - 전시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